논리 형식과 듀이의 탐구 이론

홍 경 남

주제분류 서양철학, 논리학

주 요 어 형식 논리, 탐구 논리, 존 듀이, 논리 교육, 내용

요 약 문

형식 위주의 논리 교육은 그런 형식이 나온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없게 하여 불확정적인 문제 상황에서 형식의 사용을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형식 위주의 논리 교육은 '논리'가 우리의 삶과 연관된 실질적인 것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형식'이 마치 미리 주어지고 정형화된 것처럼 생각되게 만든다. 미리 주어진 정형화된 규칙으로서 형식 위주의 논리 교육은 그 정형성으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논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를 가질 수 있다. 형식 논리가 학생들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형식과 내용의 분리가 아니라 형식과 내용의 일치를 꾀해야 한다. 그리고 논리 교육에서 형식과 내용의 일치를 꾀하기 위해서는 형식의 기원과 사용을 알아야 한다. 형식 논리의 형식들은 모두 오랜 실제적인 탐구 과정의 결과물이고, 그리고 그런 형식들은 계속하여 수정되고 새로 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형식들이 실질적인 탐구 활동에서 나오는 과정을 이해함을 통해서 그런 형식들을 일상적인 논증적 실천의 지도 원리로서 활용할 수 있다.

www.kci.go.kr

1. 들어가는 말(논리 교육의 문제 상황)

일상적인 삶과 관련한 실천적인 것이든 이론적인 성격의 것이든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 교육에서 논리 교육은 핵심적인 것이고, 또한 논리 교육에서 '형식 논리'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된다. 여기서 형식 논리 교육이란 통상 정언삼단 논리, 명제 논리, 술어 논리 약간을 의미하곤 한다. 이처럼 형식 논리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근거로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해볼 수 있다. (1) 함축, 타당성, 건전성과 같은 형식 논리의 기본 개념들은 명확하고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잘 이해할 수 있다. (2) 건전한 연역 논증은 필연적인 관계로 묶인 참인 전제와 참인 결론을 보여주기에, 좋은 논증의 이상으로서 자리할 수 있다(논증이 건전한 연역 논증에 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은 더 좋은 논증이다). (3) 형식 논리의 형식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더불어 학생들은 논증을 평가할 수 있는 분명한 표준을 가질 수 있다(논증을 더 잘 조직하고 논증에 대한 그들 자신의 생각을 보다 분명하게 표출할 수 있다). (4) 형식 논리 교육은 논증 일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5) 형식 논리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다.[1)]

한편 형식 논리 교육에 대해 이와는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다. 학생들은 형식 논리 교육을 통해서 단순한 논증들을 적절한 기호적 형식들로 번역하고, 추론 규칙이나 대치 규칙 등의 형식적 규칙들에 의해 결론이 그 전제들로부터 논리적으로 따라 나오는지 증명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통상 그렇듯이 학생들은 그런 학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무엇을 위한 것이고 실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기에, 그런 형식적 연습이 갖는 장점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학습된 논리는 일상적인 삶에 유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와 거리가 먼 어떤 것으

1) Donald Hatcher, "Why Formal Logic is Essential for Critical Thinking," *Informal Logic*, Vol. 19, No. 1(1999), pp. 77-89 참조.

www.kci.go.kr

로 보일 수 있다. 새먼(Merrilee H. Salmon)은 같은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논리 수업에서 다뤄지는 논증들은 실제 삶에서 흔히 만나게 되지 않는 유형들이거나, 너무나 단순하여 그것들을 분석하기 위해 생긴 기재가 가치 있기 보다는 곤란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리학 과목을 무의미하거나 또는 흔히 어쨌든 이수해야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잊어야 할 고통스런 필수 과목이라고 여긴다."[2]

나아가 형식 논리를 실제 삶의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생각해보자. 새먼이 지적하고 있듯이 인공적인 단순 사례를 통한 형식 논리의 학습은 그런 형식 논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힘을 감춰버릴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런 형식을 낳게 한 원래의 문제 상황 내지는 맥락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형식 논리의 형식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관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형식 논리는 기껏해야 교묘한 기술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보일 것이고 더구나 그들에게 그런 기술들은 교실 밖의 문제 상황에서 제대로 쓰일 수 없는 별 쓸모없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형식적인 규칙들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논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형식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아이와의 대화 장면을 생각해보자. "왜 닭은 깃털을 갖죠? 닭이 새이고 새들은 모두 깃털을 갖기 때문이야. 모든 새가 날 수 있나요? 아니야 타조는 새지만 날 수 없어." 이 문답은 정언 삼단논법의 한 형식((모든 타조는 새다, 어떤 타조도 날 수 없다)/어떤 새는 날 수 없다)을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가 이런 형식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은 형식 자체

2) Merrilee H. Salmon, "Informal Reasoning and Informal Logic," *Informal Reasoning and Education,* (eds.) James F. Voss, David N. Perkins, Judith W. Segal, 1991, p. 158.

www.kci.go.kr

에 대한 고려 때문이 아니라 주위의 일상적인 것들과 관련하여 그것들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비형식적인 고려 내지 관심 때문이었다. 논리 학습에서 형식적인 기술들은 원래 그것들을 낳을 동기를 주었던 비형식적 고려들의 맥락에서 소개될 때 그런 형식이 지닌 힘(추론을 단순화할 수 있는 등의)을 보다 잘 알 게 만들 수 있다. 단지 인공적으로 구성된 단정한 논증들에서 드러나는 형식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형식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애매모호하고 단정치 못한 논증들에 다 적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기대일 수 있다.

형식 논리는 분명 우리에게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상 언어로서 형식 논리는 오랜 세월의 연구를 거쳐 체계화된 결과물이고, 현실적으로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프로그램의 기초 논리 체계로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형식 논리는 논리적 추론의 구조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학 논리 교육에서 본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재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 함양을 꾀하는 논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 논리가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용법'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용법은 단지 형식 논리 체계의 추론 규칙을 암기하여 적용케 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형식'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그리고 그런 형식은 내용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지 그 원천과 과정에 대한 이해 또는 자각을 통해서만 교육될 수 있다. 이제 논리 교육에서 '형식'의 위상과, 형식과 내용의 관계 및 논리 교육자의 역할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 여기서 이런 밑그림은 듀이(John Dewey)의 '탐구 논리'를 배경으로 하여 그려질 것이다.

2. 형식 논리의 '형식'은 어디서 온 것인가?

예컨대 명제논리 체계에서 조건 기호의 형식적 의미는 '전건이 참이면서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만 조건문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이 의미는 일

www.kci.go.kr

상적인 조건문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 하나만을 골라내어 논리적 조건문이 오직 그 의미만을 가지도록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조건문은 어떻게 그런 핵심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전건이 성립하면 후건도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믿는 경우다. 이 경우 우리는 전건의 성립(참)이 후건의 성립(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건이 성립(참)하고 후건이 성립하지 않는(거짓) 경우를 조건문에서 배제한다. 결국 논리적 조건문이 갖는 형식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갖는 믿음 패턴 내지는 사고 패턴인 내용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형식을 다시 우리의 믿음이나 사고를 표현하는 문장이나 명제에 적용할 때면, 오직 해당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나 명제에 한해서만 그 형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나 사고 패턴이 바뀐다면 그에 따라 형식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결국 형식은 미리 주어져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항상 내용과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해하게 된다.

'형식'은 타당성의 관계가 아니라 '개연성'의 관계에 기초한 논증 분야에도 똑같이 자리하고 있다. 유비 논증, 귀납 논증 등은 일반적이긴 하지만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유비논증은 공통적으로 유비주제와 유비대상이 유사하다는 진술과 유비대상이 어떤 특성을 가진다는 진술을 전제로서 포함하고 유비주제 또한 그런 (유비대상이 갖는) 특성을 가진다는 진술을 결론으로서 포함한다. 귀납 논증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다는 진술을 전제로서 포함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도 그런 특성을 가질 것이라는 진술을 결론으로서 포함한다.

우리는 왜 이런 형식을 적절한 추론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듀이의 답변은 인간이 살아온 문제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대상들에 관하여 우리가 익히 경험해온 것들에 비추어 판단한다. 이제까지 그래온 것들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의미

www.kci.go.kr

있는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듀이에 따르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미적 형식과 법적 형식도 이와 마찬가지다.[3] 미적 형식들은 소정의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재료들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재료에 따라 생겨난다. 또한 법적 형식들은 논쟁 해결의 수단을 제공하는 실질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조건이 성립할 때 새로운 형식이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나타나야 한다. 인간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법적 규칙들은 갈등을 막거나 해결하며 해를 입은 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규칙들은 자연스런 행위 법식이 사회 조건들에 부응하여 새로운 형식을 취하게 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한다. 새로운 양식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새로운 조건들과 관계를 만들어낼 때, 새로운 형식들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생겨날 수 있다.

듀이는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발견하는 추론 형식을 '탐구의 논리'로 구체화한다.[4] 듀이가 제시하는 논리학은 탐구 이론이고, 그 주제들은 탐구의 절차들이다. 논리 형식은 탐구의 다양한 경험적 절차들을 미리 연습 내지 시연하는 방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형식 체계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구체적인 시행들과 그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들이다. 듀이의 탐구는 매번 불확정적인 문제 상황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확정적 상황으로 바꿈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때 끝난다.[5] 듀이에 따르면, 탐구 논리가 관계하는 탐구의 형식들은 성공적인 탐구 습관들이 정해질 때 그로부터 나타난다. 그리고 탐구 형식들은 궁극적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사되는 것이며, 기대에 못 미치면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듀이의 탐구 논리는 일단 '실제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 배양'이라는 논리 교육의 목표와 아주 잘

3) John Dewey, "Logic and Natural Science: Form and Matter," *Logic: The Theory of Inquiry*, pp. 372-374 참조.
4) John Dewey, "The Problem of Logical Subject-matter," *Logic: The Theory of Inquiry*, pp. 1-22 참조.
5) John Dewey, "The Pattern of Inquiry," *Logic: The Theory of Inquiry*, pp. 105-111 참조.

www.kci.go.kr

어울리는 것처럼 보인다.

3. 형식주의 논리 對 듀이의 탐구 논리

우리의 일상적인 의도, 판단, 추론은 불명확하지만 어떤 종류의 논리적 직관이나 통찰에 의존하고 있다. 논리학에서 형식주의는 이런 논리적 직관이나 통찰을 명확한 기호적 연산으로 대체해버린다. 기호적인 연산은 기호가 갖는 직접 관찰 가능한 특징에 의해 제어될 수 있기에 극히 명확한 것이다. 이런 기호적 연산을 가능케 하는 형식 체계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은 물론 논리학의 진보를 의미할 수 있고, 한편으로 아주 유의미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논리학의 목표가 다만 조건화된 상황에서 이뤄질 수 있는 명확한 계산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인간 삶의 문제 상황에서 이뤄지는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논리 교육은 단순히 형식화된 논리 체계를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들의 사용 내지는 사용상의 논리라는 지평에 있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듀이는 논리 실증주의와 같이 형식을 내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바라보는 형식주의의 입장이 갖는 이점을 인정한다. 그런 입장은 기존의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에 기반한(논리 형식은 선험적인 세계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등의) 논리 이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논리학의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 "논리 실증주의로 알려진 현대의 논리론 움직임은 명제와 용어의 사용을 거절하고, 문장과 단어로 대체한다. 그런 변화는 그것이 명제들의 기호적 구조와 내용에 주의를 고정하는 한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인식은 미리 구상된 존재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믿음들에의 예속으로부터 논리 이론을 해방시키고, 논리 이론이 명제들의 내용들과 기능들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6]

www.kci.go.kr

하지만 형식주의적인 체계화가 그런 이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듀이가 보기에 사실적이고 개념적인 의미 내용과 완전히 유리된 순수한 형식은 결코 실천적으로 응용될 수 없는 것이다. 듀이에 따르면, 형식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용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따라 생긴다. 그리고 형식과 내용은 서로 교호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 "형식과 질료 간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형식주의자다. 그들은 또한 그들 안에서 세분된다. 몇몇은 형식들이 형이상학적인 가능성들의 영역을 구성한다는 학설을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형식들이 문장들 속에 있는 단어들의 구문론적인 관계라고 주장한다. 이와 대립하는 유형의 논리 이론은 형식들이 질료의 형식들이라고 주장한다. 논리적 형식들은 탐구에서 그 목적(보장된 결론의 제정)에 의해 결정된 조건들에 주제가 종속되어 따름으로써 자연히 생긴다."[7]

듀이는 논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그것들이 일상어에서 쓰이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복원하려고 애쓴다. '명제(proposition)', '타당성(validity)' 개념 등이 그런 것이다. 우선 형식 논리에서 '명제'는 논리 이론의 단위 재료로서 형식적인 참 또는 거짓의 속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듀이의 탐구 이론에서 '명제(proposition)'는 말 그대로 앞서(pro) 제시되어(pose) 아직 참-거짓이 확증되지 않은 단순한 '제안(proposal)'이다. 형식 논리에서 타당성(validity)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는' 논증의 속성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듀이는 이런 정의에 따른 타당성을 '형식적 타당성'이라고 규정해버리고, 그 단어가 갖는 일상적인 의미를 되살린다. 즉, 듀이의 탐구 이론에서 타당성(validity)은 해당 단어의 일상어적 의미인 '근거가 확실한', '정당한', '효과적인', '유효한', '강건한', '건전한' 속성을 뜻한다. 그리고 듀이에서 이런 속성은 추론만이 아니라 명제 자체에도 당연히 귀속될 수 있다. 모든

6) John Dewey, "General Theory of Propositions," p. 284.
7) John Dewey, "Logic and Natural Science: Form and Matter," pp. 371-372.

www.kci.go.kr

명제는 사용상의 기능에 의해 그 지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용어 사용만을 보아도 듀이의 탐구 이론은 형식 논리 체계의 구문론과 의미론의 차원이 아니라 일상적인 실천에서 논리의 사용을 묻고 있는 화용론의 차원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듀이에게서 기존의 형식적인 논리 체계의 지위는 이상화된 것으로서 어떻게 일상적인 실천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하는 그 기능에 의해서만 유효한 것일 수 있다. 예컨대 "모든 위성은 초록 치즈로 만들어져 있다. 달은 위성이다. 따라서 달은 초록 치즈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삼단논법은 형식적으로 정확하지만 탐구를 늦출 수 있는 부적절한 명제들로 이뤄져 있기에 사용상 유효한 것일 수 없다.

듀이에 따르면, 형식 논리의 기본 공리라고 일컬을 수 있는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또한 명제 일반의 속성이 아니라 만족되어야 할 궁극적 조건을 표현한다. 예컨대 동일률은 의미가 탐구의 연속에서 안정적이어야만 한다는 논리적 요구를 의미한다. 한 의미는 소정의 탐구 전체에 걸쳐 항상 균일해야 한다. 이런 조건의 충족이 소정 기호가 모든 탐구들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질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탐구를 통해 이뤄지는 판단은 어떤 관찰 사실의 증거적인 의미나 어떤 개념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다. 동일률은 단지 탐구 중에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기능적 힘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듀이에 따르면, 과학 탐구에서 도달된 모든 결론은 사실에 관한 것이든 개념에 관한 것이든 또 다른 탐구들에서 그것이 처하게 되는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 의미들의 안정성이나 동일성은 진보적으로 만족될 조건으로서 제한하는 이상이다. 이런 동일률의 침해나 준수는 또한 모순율로 이끌 수 있다. 예컨대 배타적 선언 명제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모순율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한 시기에는 모든 것을 망라하여 필연적이라고 생각된 이접들이 나중에 불완전한 것으로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모순율이나 배중률이 탐구의 연속 과정에서 만족되어야 할 논리적 조건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듀이에게서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은 주어진 명제들이 갖는 고유한 관계적 속성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만족되어야 할 조건들의 형식으로서, 지도 원리로서,

www.kci.go.kr

탐구의 규제적인 이상으로서 유효한 것이다.

4. 탐구 논리는 형식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

듀이는 논리학의 목전(proximate) 주제가 형식 논리 체계에서 소위 논리 상항인 것들이 표현하는 명제들 간의 관계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관계가 논리학의 주제가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상당한 불일치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들은 순수한 형식으로서 독립적으로 자존하는 형식들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주제 내지는 내용의 형식들인가? 만약 주제 내지는 내용의 형식들이라면, 그 주제나 내용은 무엇이고, 주제가 형식을 가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그리고 왜? 듀이에게서 이는 논리학의 목전 주제를 넘어서는 논리학의 궁극적인(ultimate) 주제다. 그는 이 궁극적인 주제를 '탐구 이론'으로서 구현하고, 이 이론이 논리학의 목전 주제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8] 싱어(Marcus G. Singer)는 바로 이 '탐구 논리가 형식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듀이의 주장에 반대한다.

> "존 듀이의 논리 이론이 갖는 목표들 중 하나는 명제들 간의 관계들의 영역인 논리학의 목전 주제라고 그가 부르는 것을 질서 지우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 관계들은 '이다', '아니다', '-라면 -다'와 같은 단어들이 표현하는 관계들이며, 아마도 러셀과 화이트헤드의 『수학원리』에 포함된 것과 같은 형식 논리학의 체계들에 상술된 논리적 토픽들일 것이다. 듀이는 이런 논리학의 목전 주제의 핵심에 관해 일반적인 일치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논리학의 궁극적 주제에 관한 질문들이며, 이 질문들은 이 논리적 항들 내지는 형식들이 뭔가의 형식들이긴 한지, 뭔가의 형식들이라면 무엇의 형식들인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듀이의 <논리학>은 형식 논리학에 관한 철학적 이론을 포함한다. 듀이에 따르면, 궁극적인 논리적

8) John Dewey, "The Problem of Logical Subject-matter," pp. 1-3 참조.

www.kci.go.kr

> 주제에 관한 가설은 논리학의 목전 주제를 만족스럽게 질서 지우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듀이의 이론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형식 논리학 또는 논리학의 목전 주제를 설명하는 대신에 듀이의 이론은 사실 그것을 훼손한다."[9]

싱어의 반대 초점은 일차적으로 듀이의 '명제' 개념에 대해 두어지고, 그에 기초해서 명제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인 '타당성' 개념 내지는 '모순' 개념 등(논리학의 기초 개념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없이는 논리학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이 듀이의 논리 체계 내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듀이에게서 '명제'는 참/거짓의 값을 갖는 문장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문제 해결에 앞서 제시되는 제안 정도의 지위를 갖는다. '제안'은 과학적 가설과 유사한 것으로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일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적절한 관련성이 있다거나 유효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싱어는 이런 '제안으로서 명제' 개념이 참/거짓일 수 있는 명제에 대신하여 그대로 형식 논리를 이루는 한 단위로서 사용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식 논리의 기초 개념인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은 말 그대로 명제가 갖는 참/거짓의 속성에 기반한 원리고, 그런 속성이 사라져버린다면 해당 원리는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만약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인 것이 아니라 유효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서만 기술될 수 있다면, 명제들의 형식적인 연역이나 논리적 귀결들의 제시는 불가능할 것이다. 타당한 연역이나 논증과 부당한 연역이나 논증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타당한'이라는 용어가 형식 논리학에서 사용될 때, 한 논증이 타당하다고 말할 필요충분조건은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자기모순)하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연역 가능성은 명제들 간의 관계로서, 한 명제가 참이라면 그것으로부터 연역 가능한 어떤 명제든 참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9) Marcus G. Singer, "Formal Logic and Dewey's Logic," p. 375.

www.kci.go.kr

>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반대 사례들이 한 논증이 타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논증에 대한 반대 사례는 대략 참인 전제들과 거짓인 결론을 갖는 똑같은 형식의 논증이다."[10]

형식적인 타당성 개념을 듀이의 명제 개념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 논증이 타당할 필요충분조건은 '전제들이 유효한 것이면서 결론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불가능성'은 형식적 타당성 개념과 연계되어 있기에 '논리적 모순'에 기초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명제가 어떤 목적을 위해 유효한 것이라고 하여 그것과 모순되는 명제가 그 목적을 위해서 유효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 명제가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것으로부터 그 모순되는 명제가 유관(적절한 관련성이 있다)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모순되는 명제는 단순히 그 문제 해결과 무관한 것일 수도 있다. 싱어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듀이적인 유효성 내지는 유관성이 논리적인 '모순' 개념이나 형식적인 타당성을 위해 필수적인 값('참'에 준하는)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11]

형식적인 타당성이나 모순 개념은 모두 진리의 형식적 속성에 의존하고 있지만, 듀이적인 유효성 또는 유관성은 바로 이런 형식적 속성을 결

---

10) Marcus G. Singer, "Formal Logic and Dewey's Logic," pp. 376-377.

11) 요컨대 싱어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다.

1. 유효한 명제들로부터는 단지 유효한 명제들만이 연역된다거나, 유효하지 않은 명제는 결코 유효한 명제로부터 연역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 '철은 금속이다'라는 명제는 미 대통령이 한국을 몇 번 방문했는지 확정하는 문제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철은 금속이 아니라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3. 만약 한 명제가 참이라면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참이지만, 어떤 명제가 유효하다거나 유관하다는 진술은 항상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문제 상황을 지칭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

---

4. 듀이 논리 이론의 핵심 개념인 '유효성'이나 '유관성'은 형식적 타당성을 위해 필수적인 '참'과 같은 기호의 형식적 값을 가질 수 없다.

www.kci.go.kr

여하고 있다. 싱어가 보기에 듀이의 탐구 이론은 바로 형식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담아낼 수 없기에 그가 공언한 궁극적 주제의 달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 "(모든 위성은 초록 치즈로 만들어져 있다. 달은 위성이다. 따라서 달은 초록 치즈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삼단논법은 형식적으로 정확하다고 듀이가 말할 때 일어나는 물음은, 듀이의 탐구 이론 안에 있는 어떤 기초에서 이런 논증이 '형식적으로 정확하다'고 말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정확성이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듀이는 그가 정의한 바 탐구 맥락 밖으로부터 고려 사항들을 수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맥락 내지는 듀이의 논리 이론에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12]

싱어의 이런 반대는 온당한 것일까? 듀이의 견지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형식 논리에 관한 연구가 무가치하다고 듀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그의 언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차 논리적 원리들(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의 존재나 필수불가결성은 결코 부인될 수 없다. 문제는 그것들의 기원과 사용에 관한 것이다."[13]
>
> "동일률, 모순율 및 배중률과 같은 제1원리들은 연속된 탐구의 수행 동안에 탐구의 성공적인 추구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어온 조건들을 나타낸다."[14]

여기서 다만 듀이가 형식 논리에 관해 달리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형식 논리의 '형식'이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닌 탐구의 산물일 뿐이며(논리적 원리의 기원), 그 형식이 탐구 과정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12) Marcus G. Singer, "Formal Logic and Dewey's Logic," pp. 384-385.
13) John Dewey, "The Problem of Logical Subject-matter," p. 12.
14) John Dewey, "The Problem of Logical Subject-matter," p. 11.

www.kci.go.kr

그 사용상의 기능(논리적 원리의 사용)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그런 형식인 논리 원리들은 탐구에 앞서 미리 고정되어 있으면서 탐구를 조건 짓는 선험적 원리들이 아니라 연속된 탐구의 조절 과정 바로 그 안에서 산출되는 것일 뿐이다.

'형식'이 연속된 탐구의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라면 동일률의 논리적 요구와 관련한 싱어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듀이에서 형식은 탐구에서 나오고 탐구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 원리인 동일률의 논리적 요구는 탐구 상황마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한 탐구 상황 내에서 동일률의 논리적 요구는 만족될 수 있다. 우리는 적어도 한 탐구의 맥락에서 어떤 용어가 갖는 의미는 동일할 것을 필히 실제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탐구 맥락 속에서 유효한 것은 해당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일 수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적어도 각각의 탐구 상황 속에서는 모순율의 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또한 한 탐구의 종료 시점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결정할 때, 배중률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 한 탐구의 끝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결단 상황은 이상적으로는 다른 대안들을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한 선택지(해결책)만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초적인 논리적 원리들은 지도 원리로서 규제적인 탐구의 이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15]

논리 실증주의와 같은 형식주의의 의미에서 '형식'을 이루는 명제들은 다만 인공 언어적으로만 주어지는 의미론적 '참'의 값을 갖는다. 형식주의의 인공언어 체계는 사실 세계와는 전혀 유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참'은 세계와 관련해서 주어지는 사실로서 '참'이 아니라 다만 두 가지 기호 중에 속하는 하나로서의 기호적 참일 뿐이다. '1'이라는 숫자 또는 영문자 'T'가 '참' 대신에 쓰여도 그 형식적인 의미상에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형식적 의미만을 갖는 명제들로 이

15) John Dewey, "Formal Functions and Canons," *Logic: The Theory of Inquiry*, pp. 343-347 참조.

www.kci.go.kr

뤄진 형식이 실제 세계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형식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실제 세계에 대한 것인 일상적인 논증에 전혀 적용될 수 없다. 하지만 듀이가 주장하듯이, 그런 형식이 탐구의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라면 계속되는 탐구를 이끌 수 있는 지도 원리로서 기능할 수 있다. 물론 그 지도 원리는 미리 주어진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다만 탐구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기에 추후 탐구의 과정에서 유효하지 않다면 능히 수정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그래서 형식 논리적인 의미의 명제는 듀이에게 오직 '이상' 내지는 '한계'의 의미에서만 참/거짓의 값을 갖는다. '이상'이나 '한계'에 있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지만 우리의 탐구 활동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 원리가 될 수 있다.[16]

> "'A'와 '-A'와 같은 모순 관계에 있는 명제들에 관한 순수하게 양자택일적인 형식화 작업은 어떤 것이든 담론 세계를 제거해버리고 긍정 명제에 어떤 값이라도 할당될 때 부정 명제를 전적으로 불확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적인 형식으로 모순 관계에 있는 명제들을 제정하는 일은 이접적인 확정적 대안들이 속하는 한계들을 정하는 수단으로서 해석될 때 필요한 예비적인 논리적 절차다."[17]

언제나 변함없이 고정된 값을 갖는 '진리'는 듀이의 탐구에는 존재치 않는다. 단지 그런 진리에 준하는 것이 있다면 '보장된 주장' 내지는 전통적인 어휘로 '정당화된 믿음'이다. 하지만 이런 보장된 주장도 언제나

16) 듀이는 자신이 아는 논리적 관점에서 '진리'에 관한 최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퍼스의 정의라고 진술하고 있다. "진리는 추상적인 진술과 이상적인 한계의 일치다. 이 이상적인 한계를 향하여 끊임없는 탐사가 이뤄져 과학적인 믿음을 낳곤 하지만, 그 추상적인 진술이 그런 일치를 보이게 되는 것은 그것의 부정확성과 일면성을 고백함에 의해서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진리의 본질적인 성분이다." 여기서 '이상적인 한계를 향해 끊임없는 탐사가 이뤄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학적) 믿음은 항상 부정확하고 일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7) John Dewey, "Affirmation and Negation," *Logic: The Theory of Inquiry*, p. 192

www.kci.go.kr

수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탐구 상황에서는 그 보장적인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듀이에게서 형식 논리적인 의미의 명제는 말 그대로 '명제 형식'으로서 탐구를 이끄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듀이의 탐구 논리가 형식 논리의 명제를 담아낼 수 없다는 싱어의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단지 듀이의 탐구 논리에서, 형식 논리의 명제는 일상적인 '명제'와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다.

툴민(Stephen E. Toulmin)에 따르면, 실천적 논증의 요소들은 사실 명제가 아니라 진술이다. 언어는 무시간적인 명제들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영역이나 상황에 의존하는 발화로 구성된다. 진술은 특정 상황에서 이뤄지기에 진술이 그 상황과 맺는 관계는 해당 진술에 대한 해석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형식 논리학자들이 다루는 명제는 진술이 응고된 형상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형식 논리학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시간적이며 보편적인 가치다. 진리인 명제와 명제들의 관계가 그들에게는 문제인 것이다.[18] 툴민이 보기에 이처럼 명제에 기초한 논리학은 문제가 있다. 언어가 갖는 상황적인 요인을 제거해버리고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일 수 있는지 분명치 않은 것이다. 툴민의 이런 시각은 적어도 한 측면에서는 듀이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 것처럼 보인다. 툴민에서 '진술'은 바로 무시간적인 진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된 주장가능성' 내지는 '보장된 수용가능성'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5. 듀이의 탐구 논리에서 진리 對 합리적 수용가능성

듀이는 탐구 이론에서 모든 탐구가 늘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탐구 과정에서 '진리'를 좇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이런 비판이 성립한다. 듀이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정당화를 추구하는 논증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우리는 "참에서 거짓이 아

18) 툴민(Stephen E. Toulmin), 「실제 논리학과 이상화된 논리학」, pp. 281-296 참조.

www.kci.go.kr

니라 참에서 참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논증의 기초에 관한 주장조차 전혀 할 수 없게 된다.[19]

듀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수할 수 있을 것이다. '진리'가 추구할 수는 있으나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일 수 있듯이, '형식 논리'는 이상적인 논리체계로서 그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그런 체계를 일상적인 논증에다 적용하려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논증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논증은 애매모호한 말들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는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도 함께 자리해 있기 십상이다. 형식 논리학자가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이뤄내려면 형식 논리 체계에 적합한 이상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이상화는 일상적인 논증의 내용을 모두 제거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방식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해도, 그런 평가는 원래의 일상 논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논리학자가 지어낸 어떤 것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논증의 주제는 철학적일 수도 있고 과학적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과학적인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진리'라는 개념이 필수적이라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과학은 자연세계에 관한 이론을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그렇게 입증된 이론은 실제적인 효과를 통해 자연세계에 대해 진리임이 드러날 수 있다. 설혹 자연과학적 이론을 정립하거나 증명하는 데 논증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번 정립되거나 입증된 이상 그런 주장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한다.[20] 그 과정에 어떤 논증이 놓이는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번 '진리의 성소'에 들여지는 이론들은 더 이상 입증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논쟁의 영역도 되지 않는다. 적어도 과학적 진리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에 '진리'를 '수용가능성'으로 대체하는 이들은 과학에 대해 무지몽매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19) Marcus G. Singer, "Formal Logic and Dewey's Logic,"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60, 1951, pp. 375-385 참조.

20) Henry W. Johnstone, Jr., "Argument and Truth in Philosophy,"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18, 1957, pp. 228-236 참조.

www.kci.go.kr

듀이는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응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과학에서 이뤄지는 관찰이나 실험의 방법은 인문사회를 관통하는 모든 탐구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관찰이나 실험의 방법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식의 성장을 꾀한다거나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수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지 '향유(enjoyment)의 문제'일 뿐일 것이다. 그런데 또한 관찰이나 실험에 의한 입증이 바로 해당 주장이 '진리'임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여기서 '진리'라는 개념이 '대상 또는 사실과의 대응'을 뜻하고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대상 또는 사실이 칸트적인 물자체가 아니라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관찰이나 실험은 항상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런 목적은 현상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이념(idea)'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념은 탐구 과정에 항상 필수불가결하게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대상이나 사물이 물자체가 아닌 현상을 가리킨다고 해도, 그래서 진리가 '현상과의 대응'이라고 해도, 그런 진리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념을 배제한 현상과의 대응이란 역시 맹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주어진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탐구나 논증의 목적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진리'라는 말의 쓰임새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뭔가에 대응함을 통한 '진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6. 탐구 논리의 화용론적 지위

듀이의 탐구 논리를 논리 이론에서 체계 내적인 구문론/의미론의 지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적인 사용의 지평에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듀이는 '형식'의 본래적인 의미를 공리화된 형식체계에서 찾지 않고 그 기원과 사용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바렛(William Barrett)은 듀이의 탐구논리에서 형식 논리를 수용하면서도 형식 논리와 상충하지 않을 수

www.kci.go.kr

있는 길을 '구문론'/'의미론'과 '화용론'의 차원을 나눠서 생각하는 데서 찾는다.

> "듀이가 제시하는 논리학은 탐구 이론이고, 그 주제들은 탐구의 절차들이다. 의도한 절차들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실험적 재료들에 관한 조작들로서, 좀 더 발전될 과학들의 작업에서 최상으로 예시된다. 이런 논리관은 논리학 자체의 형식적 증명들과 절차들을 넘어서 논리학의 사용을 강조하는 일에서 기운을 북돋게 한다."[21]

듀이에게서 논리학의 형식 언어들은 탐구의 다양한 경험적 절차들을 미리 연습 내지 시연하는 방식들이다. 형식 체계들은 다양한 구체적인 조작들과 그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들이다. 듀이는 물론 형식적 체계들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제하며, 그것이 논리학의 진보를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뤄져야만 한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그의 탐구 논리 기획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은 사용상의 논리학과 관계가 있고, 따라서 그런 형식 체계들에 관한 해석들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논리학의 과업은 듀이에서 형식 언어들의 구성과 해석 양자를 넘어서 확장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논증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형식 언어의 맥락을 넘어서는 충분히 폭넓은 사용 맥락 안에서 해당 논증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듀이는 형식 언어에서 출발하여 일상어에서 그에 준하는 것을 찾아가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정제된 형식 논리학의 '형식'들이 파생된 것인지 찾아가는 방법을 쓴다.

고(故) 김영정 교수는 형식 논리에 일상적인 논증의 맥락을 적용하여 구성된 논리 체계를 '선제 논리'라는 이름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서 선제는 선전제(presupposition)의 약어로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놓여 있는 보편적인 숨은 전제를 가리킨다.[22] 선제는 논증의 전제, 논증

21) William Barrett, "On Dewey's Logic,"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50, 1941, p. 305.

www.kci.go.kr

의 결론 및 전제에서 결론에 이르는 추론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의 선제는 논증이 주어진 '맥락'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영정 교수는 논리 체계의 정립에서 이런 선제에 대한 고려가 기존의 형식적 논리 체계를 직관적으로 보다 충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김영정 교수에 따르면, 존재함축이 없어 보이는 특칭명제(ex. 어떤 유니콘은 두 뿔 동물이 아니다)와 관련해서 "모든 x에서, x는 유니콘이거나 x는 두 뿔 동물이 아니다"라는 선제가 자리하고 있고, 이를 고려할 때 해당 명제에 대한 형식적 기호화를 위한 적절한 해석은 기존의 "유니콘이고 두 뿔 동물이 아닌 어떤 x가 있다"가 아니라 "어떤 x에서, x가 유니콘이라면 x는 두 뿔 동물이 아니다"가 된다. 이런 새로운 논리 체계에 대한 형식적 평가는 본 논문의 주제가 아니기에, 해당 체계를 제시하려는 시도가 형식 논리의 사용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의의만을 짚어보겠다.

이런 시도는 형식의 사용 맥락을 공리화하려 하고 있기에, 논리 화용론을 공리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공리화는 수많은 해석들이 가능할 수 있는 또 다른 형식적 체계를 창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형식 논리를 보다 구체적인 경험적 수준으로 가져가려는 시도가 의미 없는 것임을 다시금 자각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화용론의 수준에 있는 형식 논리체계에 대한 해석을 해당 논리 체계의 구문론과 의미론으로 적극적으로 가져가 반영하려는 시도라고 본다면,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용론의 수준에서 이뤄지는 해석이 보다 폭넓은 맥락을 포함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해당하는 형식 논리체계는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 보다 더 충실한 것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이는 탐구 과정을 통해 형식이 도출된다는 듀이의 탐구 논리와도 잘 어울린다.

---

22) 김영정, 『선제논리를 향하여』, 강진호 엮음, 철학과현실사, 2010, pp. 22-23.

www.kci.go.kr

7. 결론(지도 원리로서 형식의 지위)

듀이에서 논증의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논리적 조건문(전건이 참이면서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 되는)은 보편 명제고, 탐구에서 보편 명제의 의미는 그 조작 기능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렇게 보면 형식 논리의 기본 개념은 이런 조작 기능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듀이에서 '참'이나 '진리'는 '끝날 수 없는 과정의 끝'이라는 역설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따라서 '참'이나 '진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나 참은 끝날 수 없는 탐구 결과물의 속성인데 탐구는 끝나지 않고 연속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진리의 속성을 진정으로 갖는 것은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문제 해결의 매 단계에서 그런 해결을 이루는 것(판단)에 단지 잠정적이긴 하지만 '끝(end)', '결과(result)'나 '해결(resolution, settlement)'이라는 의미에서 '참'이라는 술어를 적용한다. 이를 추상해보면(한번 끝이 영원한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듀이의 '참' 개념은 싱어가 지적한 형식 논리적인 참의 속성인 자기 동일성과 영원성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단 추상을 통해 세계와의 고리는 끊어지기에 '명제와 사실과의 대응성'은 끝내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진리가 대응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상당한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굳이 여기서 그것을 형식적인 진리가 갖는 본래적인 속성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앞서 인용한 주장에 기초하여 툴민은 형식 논리학이 '응용'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단지 분석적 수학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형식 논리는 일상적인 논증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없고, 활용할 수 있다면 기껏해야 탐구가 시작되기 전에 내적인 일관성의 점검 정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툴민의 형식 논리관은 너무 강한 것일 수 있다. 형식 논리를 포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해버림으로써, 우리가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해온(그리고 앞으로도

www.kci.go.kr

개선될 수 있는) 체계화된 형식 논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도, 이상, 지도 원리 내지는 본으로서 형식을 바라보는 듀이의 형식 논리관을 좇아 논리 교육에서 형식과 내용의 처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논증할 수 있다.

형식 위주의 논리 교육은 그런 형식이 나온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없게 하여 불확정적인 문제 상황에서 형식의 사용을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형식 위주의 논리 교육은 '논리'가 우리의 삶과 연관된 실질적인 것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형식'이 마치 미리 주어져 정형화된 것처럼 생각되게 만든다. 이처럼 미리 주어져 정형화된 규칙으로서 형식 위주의 논리 교육은 그 정형성으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논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를 가질 수 있다. 형식 논리가 학생들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형식과 내용의 분리가 아니라 형식과 내용의 일치를 꾀해야 한다. 그리고 논리 교육에서 형식과 내용의 일치를 꾀하기 위해서는 형식의 기원과 사용을 알아야 한다. 형식 논리의 형식들은 모두 오랜 실제적인 탐구 과정의 결과물이고, 그리고 그런 형식들은 계속하여 수정되고 새로 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형식들이 실질적인 탐구 활동에서 나오는 과정을 이해함을 통해서 그런 형식들을 일상적인 논증적 실천의 지도 원리로서 활용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www.kci.go.kr

참고문헌

김영정,『선제논리를 향하여』, 강진호 엮음, 철학과현실사, 2010.

툴민(Stephen E. Toulmin),『논변의 사용 , 고현범&임건태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Barrett, W., "On Dewey's Logic,"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50, 1941, pp. 305-315.

Dewey, J., *Logic: The Theory of Inquiry,* Henry Hold and Company, 1938.

Hatcher, D., "Why Formal Logic is Essential for Critical Thinking," *Informal Logic,* Vol. 19. No. 1(1999), pp. 77-89.

Johnstone, Jr., H. W., "Argument and Truth in Philosophy,"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18, 1957, pp. 228-236.

Salmon, M. H., "Informal Reasoning and Informal Logic," *Informal Reasoning and Education,* (eds.) Voss, J. F., Perkins, D. N., Segal, J. W.,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1, pp. 153-168.

Singer, M. G., "Formal Logic and Dewey's Logic,"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60, 1951, pp. 375-385.

www.kci.go.kr

Logical Form and Dewey's Theory of Inquiry

Hong, Kyung-Nam

The form-oriented education of logic makes it difficult to use forms of logic under indeterminate problematic situations because it dose not give any understanding upon the process by which such forms are produced. And the form-oriented education does not show that 'logic' is substantially related to our practical life, while falsely persuading the students of logic that 'forms' were previously given and fixed. Such an education of logic negatively effects that the students are further distanced from the so-called formal logic only with impressions of coldness and tediousness. In order to serve for the students of logic to cultivate the ability of logical thinking for practical problem solving, content should be coupled to form such that they be integrally conjugated. For this purpose, students are informed of the origin and the usage of forms: the forms of logic must be products of longstanding practical inquiries, continually corrected and newly produced, and we can utilize such forms as the leading principles of daily argumentation.

Key Words: Formal Logic, Logic of Inquiry, John Dewey, Education of Logic, Content

홍경남 e-mail: sensibilia@hanmail.net

투 고 일	2011년 04월 20일
심 사 일	2011년 05월 09일
게재확정	2011년 05월 23일

www.kci.go.kr